

김오진 1차관 “주거취약계층에 누수 없는 복지 서비스 제공” 강조

- 7일 대구 월성3 영구임대단지 찾아 주거복지사 등 관계자 간담회

-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2월 7일(목) 오후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위치한 월성3 영구임대단지에 방문하여 주거복지상담실 등 주요 시설을 점검하고, 대구 주거복지센터, 주거복지사 등 주거복지 현장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.
- 현장을 둘러본 후 김 차관은 “올해 정부 예산 확보를 통해 전국적으로 96개 단지, 대구지역에는 8개 영구임대단지에 주거복지사를 추가 배치할 수 있게 되었다”면서,
 - “영구임대단지에 거주하는 독거노인·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단순한 거처 제공뿐만 아니라 입주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까지 전 과정의 주거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줄 것”을 당부하였다.
- 또한, 쪽방상담소, 지역자활센터 등과 지역 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주거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발굴 및 지원하고 있는 대구 주거복지센터의 활동 사례를 듣고,
 - “대구 주거복지센터의 우수 사례가 타 지자체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공유하여 주거 문제에 처한 취약계층에게 누수 없는 주거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세심하게 챙길 것”을 지시하였다.
- 국토교통부는 주거취약계층을 점점에서 지원하기 위해 영구임대단지 내 주거복지사 배치를 확대하고 있으며, 지역 주거복지센터 확충을 통한 지역 내 주거복지 서비스 전달 강화도 추진 중에 있다.

2023. 12. 7.

국토교통부 대변인